

주체107(2018)년은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국력이 만방에 떨쳐진 위대한 승리의 해

교수 박사 김 경 철

세계를 놀래우는 특대사변들을 련이어 안아오고있는 주체조선의 희망찬 새해 주체 108(2019)년을 맞이한 우리 인민은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높이 떨쳐온 지난 주체107(2018)년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있다.

주체107(2018)년은 적대세력들의 가혹한 경제봉쇄속에서도 우리 공화국의 위상과 국력을 만방에 떨친 위대한 승리의 해였다.

이 위대한 승리는 결코 하늘이 준 우연이 아니였으며 오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고있는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웅적투쟁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주체107(2018)년에 우리 인민은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을 뜻깊게 경축하였다.

우리 민족사에서 70년은 결코 길지 않다. 하지만 이 기간 우리 인민의 사상정신생활과 나라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는 세인의 경탄을 자아내는 근본적인 변혁을 이룩하였다.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제국주의자들에게 짓밟혀 빛을 잃었던 식민지약소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나라, 불패의 정치군사강국으로 일떠세운 위대한 인민이 자기 국가의 창건 일흔돐을 성대히 경축한것은 참으로 긍지높은 일이다.

돌이켜보면 인류력사상 최초의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후 사회주의기치를 들었던 나라들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발전로정과 결과에서는 커다란 차이가 생겼다.

우리 공화국은 류례없이 엄혹한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고 자주와 정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진보적인류의 커다란 관심속에 창건 70돐을 맞이하였다.

정녕 주체107(2018)년은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정당성과 불패성을 뚜렷이 증시하고 인류의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음을 확신시켜준 력사의 해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2018년은 우리 당의 자주로선과 전략적결단에 의하여 대내외정세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사회주의건설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선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주체107(2018)년은 세계정치구도의 중심에 당당히 올라선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 힘있게 과시된 력사적인 해였다.

2018년의 세계정치정세는 복잡다단하였다. 전략적리해관계를 둘러싼 렬강들의 모순과 갈등이 첨예화되어 국제사회의 우려를 자아냈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테로와 보복의 악순환속에 류혈참극이 끊기지 않았으며 열점지역, 분쟁지역들에서는 사람들이 살길을 찾아 정처없이 방황하는 최악의 피난민사태가 초래되였다.

힘에 의한 강권과 전횡, 주권침해행위가 란무하는 속에서 인류는 진정한 국제적정의와 평등, 평화와 번영의 실현을 애타게 갈구하였으며 세계정치무대에서 가장 팔목한 사변들이 조선반도를 둘러싸고 련이어 펼쳐졌다.

2018년에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압살책동은 정치와 군사, 경제와 사상 문화 등 각 방면에서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특히 일편단심 당을 따르는 우리 인민의 순결하고 뜨거운 마음과 지향을 가로막고 당과 대중을 갈라놓으려는 제국주의반동들의 가증스러운 책동은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탁월하고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 인민은 적대세력들의 머리우에 철퇴를 안기고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치였다.

주체107(2018)년 9월 우리 인민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속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일흔돛경축행사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중심으로 온 나라를 더욱 굳게 결속시키였으며 조선인민군창건 70돛경축 열병식은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서의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내외에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오늘날 혁명과 건설이 민족국가를 단위로 하여 진행되고있으며 특히 제국주의반동들의 지배주의적책동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나라의 군력을 강화하는것은 해당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위상을 떨치는데서 매우 중요한 담보로 된다.

조선인민군창건 70돛을 맞으며 성대히 거행된 열병식에서는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해온 성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이어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무적의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나가는 우리 혁명무력의 전투적기백이 융솟음쳤다. 열병식장을 누벼가는 무쇠철마들과 각종 구경의 자행포, 방사포들이 강철포신들을 추켜들고 무적강군의 위용을 과시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군사력의 상징인 전략군부대들의 용용한 흐름은 지난날 변변한 화승대조차 없었고 국력이 약하여 침략자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강토와 민족이 란도질당하면서도 그 어디에 하소연할길 없었던 우리 조국이 자립적 국방공업의 터전을 억척같이 다지고 정의와 평화수호의 강위력한 보검을 틀어쥔 강국임을 만방에 과시하였다.

주체107(2018)년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담대한 결단과 주동적이며 과감한 조치에 의하여 긴장격화의 악순환만을 되풀이하던 조선반도와 지역에서는 극적인 변화들이 일어나 긴장완화, 평화에로 향한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었다.

오래동안 존재하여온 불신과 적대관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력사적인 사변들을 목격하면서 세계는 무시할수 없는 정치군사강국으로서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국제정치정세를 주도해나가고있는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앞을 다투어 격찬하였다.

세계언론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2018년 세계정치계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지도자, 전세계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정치인으로 격찬하면서 70여년간의 조미적대관계를 끝장내고 조선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를 여는 강력한 지도자로 우뚝 올라섰다고 칭송하였다.

주체107(2018)년은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주체조선의 억센 기상과 무진막강한 발전잠재력을 만천하에 과시한 영웅적투쟁과 변혁의 해였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발전과 번영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더우기 그 누가 선사

해주지도 않는다.

2018년에 제재봉쇄를 최후의 수단으로 삼고있는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은 더욱 악랄하게 감행되었다. 끈질기고 강도높은 경제제재로 우리 인민을 굴복시키고 내부를 와해시키려는것이 적대세력들의 음흉한 속심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공화국은 주체107(2018)년에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경제사업을 우선시하고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잠재력을 총동원하는데로 지향시켰다.

주체107(2018)년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였다.

우리 인민은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우리 혁명의 전진을 더욱 가속화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수행을 위한 증산돌격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복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의 전력생산능력이 훨씬 늘어나고 김철과 황철을 비롯한 금속공장들에서 주체화의 성과를 확대하였으며 화학공업의 자립적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 우리의 자원으로 만들어낸 공지와 보람으로 보기만 해도 흐뭇한 각종 료전기계들과 경공업제품들의 질적수준이 한계단 도약하고 대량 생산되어 인민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석탄공업부문의 로동계급은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운 속에서 자립경제의 생명선을 지켜 결사적인 투쟁을 벌렸으며 농업부문에서 알곡증산을 위하여 이악하게 투쟁한 결과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다수확을 이룩한 단위들과 농장원들이 수많은 배출되었다.

군수공업부문에서는 경제건설에 모든 힘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전투적호소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여러가지 농기계와 건설기계, 협동품들과 인민소비품들을 생산하여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추동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정초부터 온 한해 인민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헌신의 자욱을 새기시였다.

주체107(2018)년 새해 첫 현지지도로 국가과학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로부터 며칠후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찾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이 지닌 시대적사명을 깊이 새겨주시며 전략적구호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를 높이 들고 과학기술발전과 교육사업에 박차를 가하는데서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주체107(2018)년 1월 평양제약공장도 찾으시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였으며 새로 개건된 평양무궤도전차공장을 찾으시여서는 무궤도전차를 더 많이, 더 좋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 수도시민들이 리용하게 하는것은 수도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인민들에게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해주는 사업인 동시에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하고있는 조선로동당의 정책을 옹호고수하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고무된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적극 추동하는 가치있는 과학연구성과들을 련이어 내놓았고 교육자들은 현대교육발전추세에 맞게 교수내용과 방법을 혁신하고 교육조건과 환경을 더욱 훌륭하게 꾸리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켰다.

공장, 기업소들의 현대화와 생산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는 가치있는 발명과 연구성과들이 수많이 나오고 본보기대학으로 훌륭히 일떠선 평양교원대학의 모범을 따라배우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속에 교육기관들의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이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신되었다.

조국의 동해기슭에 장쾌한 선경으로 펼쳐진 고암-답촌철길, 대동강반의 명당자리에 일떠선 특색있는 인민봉사기지 평양대동강수산물식당, 연풍호의 자연풍치와 어울리게 아담하게 건설된 연풍호방류어업사업소, 산간문화도시의 전형으로 황홀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는 삼지연군 읍지구, 인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문명한 생활에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적수준의 문화생활거점으로 꾸려지고있는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인민군대 동해지구 수산사업소들에 펼쳐진 물고기폭포, 원산구두공장의 신발풍년은 우리 공화국의 자립경제의 공고성과 무한대한 발전잠재력을 보여주는 뚜렷한 실례로 된다.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말살하려는 적대세력들의 제재봉쇄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 자체의 힘으로 남들이 엄두도 내지 못할 빛나는 승리를 달성한 바로 여기에 우리 당과 인민의 존엄이 있고 커다란 긍지가 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혁명의 전로정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여온 자력갱생을 번영의 보검으로 틀어쥐고 사회주의건설의 전 전선에서 혁명적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자력갱생, 사회주의경제건설, 증산돌격운동